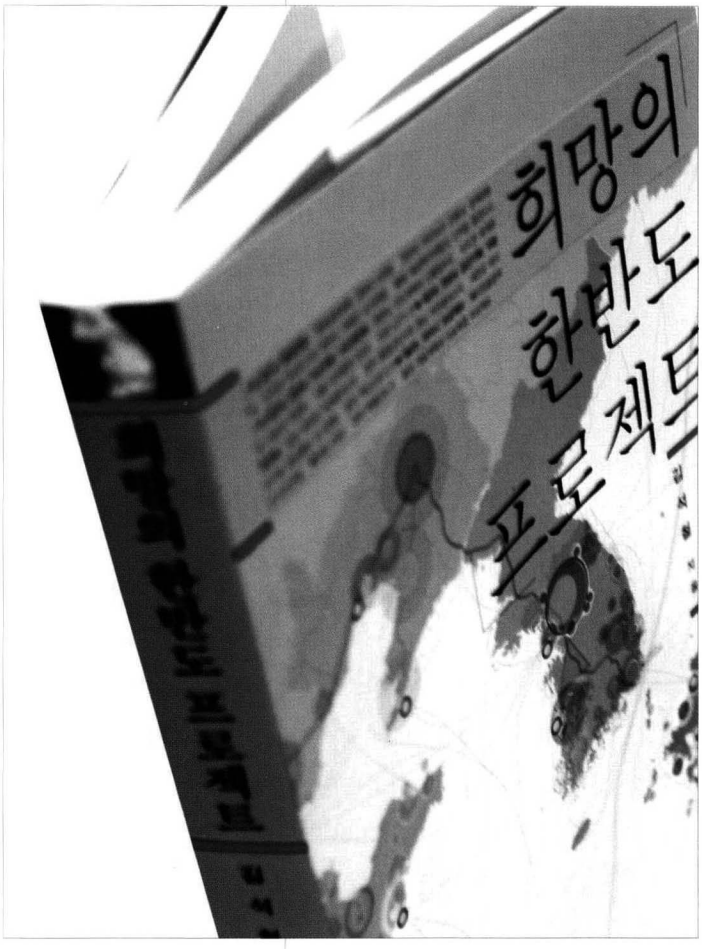
도서설계가의 기발하고 유쾌하고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

김석철의 《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

글 | 허재완



최근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김석철의《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가 대단한 화제를 낳고 있다. 왜 그런가?

우리 국토구조의 기본 얼개는 일제시대와 개발독재기를 거치면서 구축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지정학적 여건상 수도권과 동남권 지역을 잇는 이른바 경부축을 근간으로 국토골격이 짜여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부축 위주의 편향된 국토구조는 필연적으로 국토불균형이라는 후유증을 유발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시되곤 하였다. 그러나 그 대안이라는 것이 대부분 '서해안시대의 전개', '해양을 향해 열린 U자형 국토' 등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 일색이었다. 김석철의《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가 도시계획가들의 시선을 잡는 주요한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독창적이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석철은 '황해도시연합'이라는 독특한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국토문제는 한반도가 아니라 동북아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한·중·일을 잇는 황해도시연합을 통해 국토균형개발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경쟁력 강화 및 동북아의 번영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황해도시연합은 중국동부 해안지역, 한반도 그리고 일본 서남부지역의 도시들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는 개념이다.

김석철은 이들 지역을 '메갈로폴리스'와 '어반 클러스트'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도시형태로 재편성하여 서로 공간적으로 네트워크화시켜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육성시킬 것을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황해도시연합은 4개의 메갈로폴리스(베이징-톈진, 상하이-양쯔델타, 인천-서울, 후쿠오카-오사카)와 중소도시와 농촌을 결합한 7개의 어반클러스트(선양-다롄, 칭다오, 지난-취프-지닝, 금강-새만금, 부산-광양, 영남, 규슈)로 구성된다.

그는 황해도시연합이 필요한 이유를 크게 3가지로 들고 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이다. 동아시아문명권 중 한반도와 중국의 동부해안 그리고 일본열도 서남해안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라는 국가영역을 넘어 2000년 이상의 오랜 문명적 기반을 계속해 왔다는 점이다. 특히 한자漢字라는 공동의 문자와 유교와 도교 그리고 불교의 정신세계를 공유해 왔다. 다음으로 경제적 배경이다. 빈번히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경제권'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기에는 한국·중국·일본 세 나라의 국가적 규모와 경제력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중국의 산동성이나 요령성지역이 자국 내의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한반도나 일본열도와 경제적으로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황해공동체가 더욱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배경이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유럽연합이나 북미경제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육

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공동체이지만 한·중·일은 지정학 여건상 바다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 나라의 공동 해역인 황해를 중심으로 바다중심의 도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황해도시연합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으로 김석철은 '해상특구'와 '디지털 철강도시'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해상특구는 기존 해안도시와 근접한 바다에 새로운 인공도시(이른바 iCITY)로 만들어진, 국가와 도시를 초월한 공동공간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철강도시는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사전에 기획·제작된 도시의 부분들을 특정장소에서 만들어 해상의 인공섬에 정착시키는 도시다. 이른바 조립형 도시라 할 수 있다. 김석철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도시의 부분들을 조립하여 황해 바다에 최첨단 인공섬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해상특구를 조성하고 연계하여 황해연합의 프런티어로 삼자고 주장한다. 참으로 기발하고 유쾌한 아이디어다.

위대한 도시계획가는 꿈을 제시하는 선구자들이다. 현대 도시계획의 지평을 연 영국의 하워드는 산업혁명 후의 그 처참했던 도시환경 속에서 '전원도시(Garden City)'라는 꿈을 제시하여 오늘날의 아름다운 유럽도시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일제시대와 고속성장시대에 기초가 마련된 한반도의 하드웨어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한반도 대부분의 도시가 낮은 삶의 질에 신음하고 있고 국제경쟁력을 자꾸만 상실하고 있다. 기업과 산업 그리고 시민의식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도시는 여전히 과거의 도시 그대로이다. 새로운 국토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국토개조를 위한 대변환, 대혁신이 요구되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꿈이 필요하다. 우리의 도시가 각박하고 문제가 많은 것은 꿈을 제시하는 도시계획가가 너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현실타당성, 실현가능성, 구체성 등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도시계획에서 '꿈'은 사라지고 도시는 콘크리트 정글로 뒤덮이게 된다.

김석철은《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에서 건축, 산업, 도시, 바다, 동아시아를 결합한 '황해도시연합'을 우리 국토의 새로운 꿈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김석철의 꿈은 설득력이 있다. 꿈을 설명하는 그의 글을 읽노라면 역사, 경제, 도시, 건축 분야를 넘나드는 그의 지식에 새삼 놀라게 된다. 건축 및 도시설계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경험과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보인다.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이 그의 꿈에 공감케 하는 가장 큰 자산이다.

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김석철의 아름다운 꿈을 읽고 공유하기를 희망한다. 계획가, 정치인, 기업인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꿈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국토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꿈을 읽고 우리 국토의 미래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하루 빨리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김석철의 책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동안 자신이 했던 중국 및 국내 도시설계내용들을 너무 장황하게 제시하다 보니(특히 3·4부에서) 일부 연계성이 부족하고 독자들에게 개념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필자 자신도 서문에서 그런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논의가 한반도 및 중구에 집중되다 보니까 일본 서남지역에 대한 세부적 논의는 아예 없다. 황해연합이 일본의 도시들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구현되어야 할지 전혀 이해할 길이 없다는 아쉬움도 있다. 그러나 티가 다소 있다 해도 옥은 분명히 옥이다. 티 없는 옥이란 드문 것이 사실이니까.

●

이 글을 쓴 허재완은 현재 중앙대학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연세대와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에서 각각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 한국토지공사 사외이사, 산업과학대학 학장, 산업경영대학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지역계획론》《도시경제론》등의 저서와 도시개발 및 국토계획에 관한 다양한 연구논문들을 발표하였다.

《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김석철 지음 | 창비 | 400쪽 | 값 18,000원

한반도와 중동은 누구를 위해 갈등하는가

존페퍼의《남한 북한》
노엄 촘스키《중동의 평화에 중동은 없다》

글 | 박광기

일본이 자꾸만 독도를 자기네 섬이라고 우긴다. 언제부터 독도가 일본의 영토였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독도가 우리 영토이며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지만, 일본의 그런 행동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남·북한으로 분단되지 않고 하나의 통일 국가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한반도의 통일은 분단 이후 계속된 우리의 열망인 동시에 우리 민족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비록 분단의 직접적인 원인이 우리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제 통일이라는 과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분단의 역사가 이제 점차 한 세대를 뛰어넘고 있다. 분단과 분단 이후의 한반도 상황,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어쩌면 제시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제의 강제점령에서 해방된 지 벌써 60년, 분단의 역사도 이제 60년이 되었다. 더구나 그 60년 속에는 민족간의 전쟁이라는 경험도 들어 있다. 60년이 지나는 세월은 남과 북의 경계를 세월의 흔적보다도 더 깊고 험하게 만들어 놓았다. 북한을 아는가? 북한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주민들을 이해하는가? 북한이 휴전선 너머 있는 사회라서 잘 모른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남한에 대해서는 아는가? 어느 물음에 대해서도 딱히 대답할 말이 궁하다. 우리도 모르고 북한도 모르면서 우리는 통일을 염원하고 또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만 했다.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우리 국민 스스로가 민족의 미래에 대한 주도권을 갖게 된다는 것"(《남한 북한》, 262쪽)이 중요하다. 그 방식과 원칙이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의 과제를 우리 손으로 풀어가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치적 환경은 우리의 의지와는 따로 돌아가고 있다. 비록 우리 정부가 주변국가, 특히 미국과 일본과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바로 존 페퍼의《남한 북한》은 이런 관계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왜 남한이 그리고 동시에 북한이 지금과 같이 서로가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한국 국민들이 지닌 한恨의 의미가 무엇인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분단의 지속과 통일을 가로 막고 있는 국제정치적 환경,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한반도정책 등에 대해서도 페퍼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과연 한반도의 장래가 미국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인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한반도의 평화에 한반도는 없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책머리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떠나지 않는다.

만약 한반도의 운명이 우리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서 정해진 수순으로 전개되고 있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남·북한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수차례의 전쟁을 겪은 중동의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만약 한반도의 평화에 한반도가 없다면, 그럼 "중동의 평화에 중동은 있었는가?" 그 대답 역시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노암 촘스키는 말하고 있다.

'미국의 대테러정책에 관한 촘스키 보고서'라는 부제가 붙은《중동의 평화에 중동은 없다》는 그동안 써왔던 내용의 마지막 장에 '세상이 진정 바뀌었는가?'라는 의문으로 미국의 대테러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미국은, 비록 한반도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고 미국의 세계전략을 동북아시아에서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지 않는 것에 비해, 중동에 대한 미국의 세계전략은 동북아시아보다는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수준의 개입을 꾸준히 추구해 왔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탈냉전기의 중동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냉전시대부터 지속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추구해 온 정책의 연장선에 서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와 중동의 차이점은 바로 미국적 문화, 미국의 정책에 대한 상대국들의 이해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고, 바로 그것이 미국의 세계전략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석유(25쪽)라는 경제적인 가치의 유무가 또 다른 차원에서 중동과 한반도를 다르게 갈라놓고 있다.

그 결과 테러에 대한 대응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테러는 미국적 가치 인정의 차원을 떠나서 그 가치의 이식을 위한 강제로 정당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중동의 민족국가와 국민들의 선택이 강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중동의 평화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미국이 바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선택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바로 "미국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동의 평화를 위한) 유일한 요소이기 때문이다."(310쪽)

한반도와 중동, 지구의 거의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세계평화와 국제정치질서의 변화를 거론할 때면 반드시 거론되는 두 지역이다. 바로 그 중 한 지역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또 우리는 통일이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60년을 지내왔다. 비록 미국이 이 두 곳의 안보와 평화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또한 앞으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더라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의 자식들이 살아야 할 곳이 바로 여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그리고 누가 우리의 운명을 현재와 같이 이끌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앞으로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에 한반도가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은 한편에서 보면 다소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민족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나서 여기서 살다가 결국 여기에 묻히게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해야 한다. 두 권의 책이 서로 다른 대상을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 비록 사고와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이 글을 쓴 박광기는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를 받은 후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CBS 시사포커스를 진행했다.

사족 : 독도문제가 늘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록 원본에 충실 한다는 의미에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책의 앞머리에 나오는 동해의 표기가 'Sea of Japan'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아무래도 눈에 거슬린다.

《남한 북한》 존 페퍼 지음 | 정세채 옮김 | 모색 | 298쪽 | 값 11,000원
《중동의 평화에 중동은 없다》 노암 촘스키 지음 | 송은경 옮김 | 북폴리오 | 448쪽 | 값 18,000원